

<서평>

신앙고백과 패션의 조화, 인도네시아의 히잡을 다시 보다

김형준, 『히잡은 패션이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의 미에
대한 생각과 실천』, 파주: 서해문집, 2018.

김진오*

의복은 대중들에게 시각적으로 인지되면서 하나의 상징으로 자리 잡는다. 더 나아가 의복은 사회적 상징으로 기능하며 타인들과의 의사소통 도구로 활용되고, 사람들의 행동 체계에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의복의 하나인 ‘히잡’은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이슬람 사회에 대한 서구의 부정적 태도를 나타내기도 하고, 서구 식민지 지배에 대한 독립과 저항의 상징으로서 서구에 대항하는 민족적인 성격을 드러내는 기제로 작동하기도 한다.

언제부턴가 주변에서 히잡을 두른 여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게 되었다. 사람들은 히잡을 쓴 여성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을 할까? 히잡은 이슬람을 상징하는 하나의 기호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서구 미디어의 영향으로 히잡을 여성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여성을 억압하는 기제로 인지한다. 이로 인해 이슬람 세계는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려지며 이슈화 된다.

* 전북대학교 고고문화인류학과 박사과정. bbokng7@gmail.com.

우리는 인류학자 김형준 교수가 저술한 『히잡은 패션이다』에서 히잡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접하게 될 것이다. 이 책에서 히잡은 패션의 아이콘이자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미적 표현의 상징으로 다시 태어난다. 그는 히잡의 종교적, 정치적 요소가 패션이라는 새로운 요소와 어떻게 조우하는지를 인도네시아 여성의 히잡 착용을 둘러싼 집단 간 경합과 타협의 과정을 통해 그려내고 있다.

히잡은 저자의 표현처럼 경건하고 종교적인 삶을 살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여 지기 십상이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히잡 착용 여성은 종교가 삶의 중심이고 정체성의 핵심이기 때문에 전근대적이고 탈현대적인 성향을 가졌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이런 편견은 저자뿐만 아니라 비무슬림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이다. 저자는 히잡 스타일의 변화를 감지하고, 패션에 민감한 여대생들을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자바 욕야카르타(Yogyakarta)에서 민족지 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리고 그는 히잡 착용이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에게 자신을 드러내고, 구별 짓고자 하는 욕망을 표현하는 매개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미적 인식과 실천도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 글은 새로운 매개체인, ‘패션으로서의 히잡’을 가지고 무슬림 여성과 대중의 현장감 있는 만남을 성사시켰다. 그래서 아름다움에 대한 감수성을 지닌 많은 이들에게 인도네시아 여성의 아름다움을 상대적인 잣대로 읽어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종교적 세계관이 일상의 근본 원칙으로 받아들여지는 이슬람 사회에서 여성의 주체적이고 전략적인 입장을 다면적으로 드러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이 저서는 7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용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1장과 2장은 히잡과 이슬람의 관계를 다루었다. 3장은 인도네시아 히잡의 역사적 전개를 상세하게 다루었고, 4장과 5장은 히잡

과 미적 표현의 양립을 추구하는 히자버의 출현, 이 양립의 문제 사례인 질뵘 논란을 다루고 있다. 6장과 7장은 심층 인터뷰를 통해 히잡과 미적표현의 복잡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히잡 착용이 무슬림 여성들의 개별적인 신앙고백이자 그녀들의 주체성 구현의 한 방편임을 드러낸다.

I. 히잡과 이슬람

영어권에서는 무슬림 여성들이 머리털, 목, 어깨 등의 신체 부위를 가리기 위해 착용하는 것을 통칭해서 ‘베일(veil)’이라고 불렀다. 아랍어로는 ‘히잡(hijab)’, 인도네시아에서는 ‘질뵘(jilbab)’이라 불린다. 베일은 노출정도에 따라 천의 길이, 같이 입는 옷, 천의 모양에 따라 히잡, 니잡, 부르카, 아미라, 샤일라 등으로 상이하게 불린다. 지역적, 역사적 다양성으로 인해 통칭어를 선별하기 어렵지만 무슬림, 비무슬림 사회에서 히잡이 통칭어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무슬림 여성이 착용하는 베일의 통칭으로 ‘히잡’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슬람이 도래하기 이전에도 지중해 지방에는 히잡과 유사한 복장이 있었다. 유럽에서 히잡은 낯선 복장이 아니었지만 유럽의 제국주의 팽창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된다.

그 인식은 ‘격리’와 ‘야만’이라는 상호 연결된 두 축을 중심으로 형성됐다. 즉 ‘신체 은폐를 강요함으로써 히잡은 자기표현의 제한과 공간적 격리를 강제하며, 가부장적 체계에 여성을 속박하려는 남성의 야만성을 표현한다’는 식으로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이는 이슬람 사회에 대한 서구의 침탈을 정당화하는 기능을 했다 (26~27쪽).

히잡은 서양 남성들에게 성적 욕구를 자극하는 복장이기도 하고, 여성의 미를 은폐함으로써 발생하는 욕망의 대상이기도 했다. 유럽 남성들은 ‘히잡 벗기기’를 통해 자신들의 성적욕망을 드러냈고, 이런 맥락에서 히잡은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가 말한 오리엔탈리즘 담론의 전형이라고 하겠다. 이 담론은 유럽인들에게 이슬람 사회의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사명으로 작동하였다. 서양인들에게 히잡은 무슬림 사회의 부정적 태도를 상징했고, 여기에 식민화라는 정치적 논리가 개입하게 되었다. 식민이데올로기에서 히잡 벗기기는 무슬림 여성을 계몽하는 정당화 수단이 되었다. 제국주의 팽창에 대응하여 일부 이슬람 사회에서 히잡은 반식민투쟁의 상징과 같은 정치적 기제로 작동하게 된다.

이슬람 사회의 변화에 따라 히잡을 둘러싼 환경도 변화하게 되었다. 모더니티를 추구하는 이슬람화의 흐름에 맞춰 무슬림 여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현실에 대응하며 히잡을 통해 자기표현을 추구하기 시작했다. 히잡을 통한 개인의 개성과 미를 드러내는 무슬림 여성이 점차 증가하면서 2000년대 이후 히잡의 패션화가 확산되고 있다. 저자는 이 일련의 과정 속에서 무슬림 여성 역시 자신을 드러내고 구별 짓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있으며, 히잡은 이를 매개하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여성의 히잡 쓰기는 『코란』에서 기원한다. 히잡 착용에 대해 이슬람 학자들은 신의 계시가 담긴 경전 『코란』과 선지자의 언행록인 『하디스』의 구절에 의거해 각각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여성에게 복장과 행동거지를 정숙하게 하라는 『코란』 24장 31절과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요구한 33장 59절의 구절은 히잡 착용의 의무화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이용됐고, 히잡은 이슬람법의 일부로 편입됐다(46쪽). 여기서 논란이 되는 것은 노출 허용 부위였는데, 이슬람 학자는 선지자의 언행록인 『하디스』를 통해 내용의 불확실성을 해명하고자 했

다. 근본주의적 입장의 무슬림이나, 자유주의적 무슬림이나에 따라서 히잡 착용 시 노출 허용 부위가 달라지긴 하지만, 결국 전통적 해석에 따르면 ‘아우라(awrah: 가려야 할 부분)’에서 제외되는 부분은 얼굴과 손(바닥)뿐이다(48쪽).

히잡 착용에 있어 『코란』이 정의하는 ‘얼굴과 손을 제외한 신체 모두를 가려야 한다’는 해석 자체는 남성 중심적 사고를 기반으로 한다. 남성의 성충동과 혼외 성관계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전통적 시각은 여성에 대한 통제를 통해 드러나는데, 히잡은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제였다. 그래서 이런 해석에 대해 여성주의 경향의 무슬림들은 여성의 미를 표현하는데 이슬람 교리가 억압적인 요소로 작동되었고, 편향된 해석이라는 입장을 드러낸다. 이런 경향들이 현대에 이르러 대두되면서 여성의 자기표현을 이해하려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 일례로 저자가 장기간 조사해 온 중도 보수 성향의 인도네시아 이슬람 단체 무하마디아(Muhammadiyah)는 맥락에 따른 재해석을 강조함으로써 복장에 대한 이슬람의 가르침을 예절과 품위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경전의 내용을 문자 그대로 적용한 경우 글로벌사회에서 살아가는 현대 무슬림 여성의 자기 표현권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저자는 경전해석에 대한 헤게모니가 약해진 현대에 들어서 대안적 해석이 널리 확산되고, 이런 변화가 히잡을 착용하는 여성들에게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70쪽).

II. 인도네시아에서 히잡의 역사적 전개: 2000년대까지

저자는 3장에서 본격적으로 인도네시아에서의 히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추적하는데, 인도네시아 전통사회부터 독립 이후의 여성

복장이 정치적 정체성의 표현기제로 작동했음을 예증하고 있다. 그리고 1997년 아시아발 경제위기와 30년간 지속된 수하르토의 장기 집권 종결 등과 같은 인도네시아의 정치변화를 상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수하르토의 정치적 포섭정책으로 인해 이슬람의 영향력은 강화되었고, 이는 히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일으켰다. 1980년대~1990년대를 거치면서 공립학교에서 히잡 착용이 허용됐고, 히잡을 쓴 여성 역시 꾸준히 증가했다. 2000년대 히잡의 패션화에 가장 드러나게 반응한 집단은 연예인과 중상류층 여성이었다. 이들의 패션화된 히잡 착용과 고가의 무슬림 복장은 패션으로서의 히잡을 확산시켰다.

새로운 트렌드는 여대생에게도 나타났는데, 히잡이 여대생의 상징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그것을 일상복과 함께 착용하는 스타일인 ‘히잡 가울(hijab gaul)’이 나타난 것이다. 일상복과 히잡의 만남은 몸을 가린다는 히잡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저자는 히잡 가울을 지지하는 여성의 관점을 제시하며 패션, 현대성, 그리고 이슬람이 모순되지 않으며 서로 공존할 수 있다(118쪽)는 시각을 드러낸다. 히잡 가울을 쓴 여대생들은 패션과 유행을 말하는 동시에 종교적인 면 역시 강조하고 있다. 히잡 가울을 추구하는 여성에게 종교적 의무는 히잡으로 제한될 뿐, 미적 표현의 억압이나 미적 취향의 포기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히잡 가울이 유행한다는 것은 복장의 자율성이 대중에 의해 공감된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히잡 패션의 독자성을 인지하기 때문에 ‘적절한 무슬림 여성의 복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문제를 둘러싼 대립이 시작됐고, 2010년대에 접어들어 히잡을 둘러싼 집단 간 경합은 좀 더 뚜렷하게 표출됐다. 또한 패션으로서 히잡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려는 집단이 등장했고, 히잡 가울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담론이 출현했다.

Ⅲ. 히잡 착용과 미적 표현의 양립: 히자버의 출현과 질북 논란

2000년대 히잡의 대중화 과정에서 나타난 ‘패션으로서의 히잡’과 ‘히잡 가울’의 유행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히잡에 영어 접미사 ‘er’을 첨가한 신조어 ‘히자버(hijaber)’는 ‘히잡을 쓰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이들은 히잡을 통해서도 유행을 따를 수 있고 현대적일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이들은 ‘히자버 커뮤니티’를 만들고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활용하여 대중적 관심을 이끌어냈다.

저자는 히잡 착용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서 디안 펠랑이(Dian Pelangi)와 같은 유명인의 소셜 미디어를 활용해 조사를 하였다. 이 방법은 유행에 민감하고 패션에 관심이 많은 신세대 여성들의 의중을 파악하는데 적합한 방법이었다. 왜냐하면 히자버의 패션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소셜 미디어를 통해 여성들에게 영향을 미쳐 소비를 불러일으키고, 더 나아가 담론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저자는 히자버의 선구자인 패션디자이너 디안 펠랑이가 패션 히잡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교리(『코란』 24장 31절, 33장 59절의 ‘히잡 착용은 무슬림의 의무’라는 구절)를 바탕으로 무슬림 여성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아름다움과 종교와의 조화를 설명한다. 그러면서 저자는 히자버의 패션 히잡에 대한 입장이 의도에 대한 강조와 결합되면 무슬림 여성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에 대한 옳고 그름은 알라만이 판단하며, 그것에 대한 보수적 남성의 판단이나 비판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138쪽).

히자버는 높은 사회경제적 위치에 맞게 고급 소재의 히잡과 패션으로 자신을 드러낸다. 또한 이슬람에 대한 강조를 통해 자신의 종교적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외적표현보다 내적 차원을 드러내며 멋 내기의 자유를 주장한다. 저자는 종교를 중시하면서 현대성을 추구하는 히자버의 혼종성이 인도네시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이라

고 설명한다(151쪽). 또한 그는 히자버의 활동을 여성의 복장을 통제하는 이슬람 사회로부터 미적 표현의 자유를 지켜내려는 적극적 노력으로 보고 있다.

경전의 해석과 다른 히자버의 히잡 착용에 대한 보수적인 무슬림의 잠재된 불만은 히잡의 대중화 과정에서 발생한 ‘질북’ 사례에서 표출되었다. 질북은 ‘가슴의 윤곽이 드러나는 옷을 히잡과 같이 착용하는 스타일’을 말한다. 히자버가 히잡을 쓰는 여성이 만든 것인 반면 질북은 남성에 의해 만들어졌다. 남성들은 성적 환상과 욕구 충족의 아이템으로 질북 착용 여성의 이미지를 온라인에서 유통하고, 소비하였다. 그러면서 질북 착용 여성을 마녀사냥 하듯이 비난하고 자신들의 종교적 우월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도네시아 연예인 자스키아(Zaskia)는 이 질북 문제에서 비판받아야 할 대상은 질북 사이트를 만든 남성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런 그녀의 주장에 대해 인도네시아 사회는 종교적인 잣대를 들이대며 비판하고, 그녀의 진정성을 훼손하였다.

필자는 질북 논란을 통해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지만 결국 남성의 시각에 의해 주변화 되는 여성들의 한계를 읽어볼 수 있었다. 이 논란에서 몸의 윤곽이 드러나는 타이트한 의상을 입은 여성의 이미지를 소비한 남성에 대한 논의는 진행되지 않는다. 질북 논란은 무슬림 여성의 복장을 남성의 평가, 비판, 통제의 대상에 편입시켰고, 히잡 착용 기준을 종교적 담론의 주요 대상으로 편입시켰다. 『코란』에서는 남성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기 위해 여성에게 히잡 착용을 의무화한다. 여성의 개인적 표현과 주체성이 남성의 안전한 섹슈얼리티를 보장하기 위해서 희생되는 것이다. 필자는 히잡에 관련된 『코란』의 해석이 현대성을 추구하는 현대 무슬림들에게 여전히 유의미한가라는 의문을 가져본다. 물론 그들이 추구하는 현대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슬람이라는 종교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

나 남성 편향적인 『코란』의 해석이 초국가사회에서 살아가는 현재의 무슬림 여성들에게 과연 납득할 만한 것인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 그리고 세계 최대 무슬림 국가인 현대 인도네시아에 걸맞는 역사적이고 맥락적인 『코란』의 해석과 그것의 실질적인 수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IV. 현장에서 본 히잡: 개별적 신앙고백과 주체성의 구현

저자는 6장, 7장에 걸쳐 무슬림 여성들을 만나 그녀들의 히잡 착용과 미착용의 이유, 히잡 착용 시 멋 내기와 종교적 기준과의 조화에 대해서 인터뷰하고 그 내용을 분석했다.

위에서 기술하였듯이 여러 형태의 히잡이 있는데, 다른 이슬람 지역과 달리 인도네시아에서는 니갑을 ‘차다르(cadar)’라고 부른다. 저자는 히잡 중 노출부위가 적은 차다르를 착용하는 여성들을 어렵게 만나 그들이 차다르를 선택하게 된 이유를 이끌어 낸다. 먼저 차다르 착용을 스스로 선택한 데비(Devi) 사례에서 남성 중심적 교리 해석을 수용한 모습이 나타났고, 이는 남편에 대한 의존성으로 표출된다. 저자는 여성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자신의 행위자성을 적용하려고 시도하면서,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행위자로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해석한다. 다음은 아니사(Anisa)의 사례다. 그녀는 남성들의 불편한 시선으로부터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선택으로 차다르를 착용했다. 아니사에게 이슬람은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다. 저자는 아니사가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 시각을 받아들였다고 해서 행위자성이나 주체성이 부족하고 남성에게 의존적이라고 단순히 규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녀는 가부장적 교리를 수용하면서도 특정 문제에는 자기중심적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교리를 부각시키는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필자는 남성 중심적 교리를 수용하고 있는 아니사의 삶과 차 다르를 선택한 그 맥락이 일치하기 때문에 그 착용이 과연 주체적인 선택일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갖는다. 이 지적은 데비의 사례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저자는 인도네시아에서 히잡 착용은 강제가 아니며, 히잡 착용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있다(217쪽). 그는 히잡 착용이 남성 중심적 교리 해석에 대한 의존을 내포할지라도, 여성을 남성 중심적 교리에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존재로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한다. 필자에게는 여성들의 의존자성과 행위자성이 이슬람 가부장제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이해되었다.

저자는 제한된 사례이지만 데비와 아니사가 히잡 착용의 다양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미적 표현에 대해 무슬림 여성이 취할 수 있는 태도의 단면을 드러낸다고 설명한다. 그의 상대적인 사고관에 따르면, 무슬림 여성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에서 복장을 구분할 뿐이라는 것이다.

베티(Betty)의 사례에서는 히잡 착용 여대생의 융통성 있는 패션 감각이 여실히 드러난다. 그녀는 스스로도 히잡에 조화되는 옷차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쪽으로 착장을 하고 다닌다. 그러면서 히잡을 착용하는데 있어 시대적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뭇 급진적인 주장도 하고 있다. 젊은 무슬림 여대생들에게 히잡은 그들에게 억압의 기제가 아닌 자신의 개성을 드러내는 패션의 도구다. 필자가 보기에 종교적 감수성이 발달하기 시작한 여대생들에게 히잡은 포기할 수 없는 자기 신앙고백이면서, 자신을 드러내는 패션 아이템이었다. 그들은 자신의 상황에 맞게 교리를 선택적으로 재해석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스리(Sri)의 사례에서 히잡은 복장이 아닌 삶의 방식으로 다가온다. 히잡 착용은 단순히 멋 내기가 아니라 이슬람 교리에

부합하게 살겠다는 신과 자신과의 약속이다. 이처럼 히잡 착용은 개인적인 신앙적 결단이자, 신앙고백이기도 하다. 그러나 히잡 착용이 종교적 우월성으로 연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저자가 만난 여대생들은 내적 차원을 강조하며 히잡을 미착용 했다고 해서 종교적, 도덕적으로 열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도네시아에는 히잡 미착용 여성들이 다수로 존재한다. 히잡 미착용 여성이 히잡 착용 여성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종교적 의미를 히잡에 부여한다. 저자는 이러한 역설적인 상황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히잡을 둘러싼 경합의 과정이 이슬람이라는 종교가 인도네시아에서 변화해 온 과정만큼이나 다층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대변한다. 히잡을 종교적 신념의 다양성에서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은 히잡이 의상이라는 보여주기, 패션으로써 몇 내기의 기능을 넘어 종교적 의미를 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슬람은 교리적으로 근본주의와 자유주의적 입장 사이에서 상이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들의 히잡 착용방식은 다양하게 나타나고, 더 나아가 종교적 신념의 다양성에 따라 히잡을 착용할 수도 혹은 벗을 수도 있다.

저자는 히잡을 착용하는 의미를 여성들이 히잡 착용을 통해서 몇 내기를 표현하고 여성으로서의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외에도 ‘나만(nyaman)’, 즉 편안함을 추구하고 종교적 신실함을 위해서라고 서술하고 있다.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히잡을 착용하고, 거기에 맞는 의상을 선택하고 메이크업을 하는 것은 자신의 세계 안에서 미적 표현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미적 표현과 실천, 꾸미기, 몇 내기는 종교와 조화될 수 있는 것이다. 더 나아가 히잡이 억압이나 저항, 정치적 기제가 아니라 다차원적인 개인적 신앙고백에 따른 결심이라는 것이다. 또한 저자는 에필로그에서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을 이슬람 교리를 해석하고 실천하는 주체적 행위자로 그리면서, 여성들이 자신들의 상황과 성향

에 맞게 미적 실천을 추구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V. 나가면서

필자는 이 연구가 조사된 욱야카르타에 머물 기회가 있었다. 이 책을 읽은 직후라서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과 그 착용 방식, 미에 대한 그녀들의 인식이 궁금했다. 저자가 에필로그에 기술하였듯 남성 연구자로서 패션으로서의 히잡의 감수성을 이해하고, 글에 표현하기가 녹록치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필자는 저자가 갔을 법한 재래시장, 쇼핑몰의 히잡 가게에 가서 히잡의 종류를 면밀히 관찰하고, 무슬림 여성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었다. 그 이후 저자의 연구가 폭넓게 이해되었다. 저자의 분석대로 인도네시아 여성들에게는 히잡을 쓰면서도 미적 표현을 포기할 이유가 없어 보였다. 그들에게 히잡은 표현 욱구를 가로막는 기제가 아니며 그것 역시 정체성의 일부로 미적 표현의 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었다.

책을 읽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생겼다. 『히잡은 패션이다』는 주로 20대 여성의 시각을 바탕으로 조사되었다. 20대와 다르게 중년층 여성들이 히잡을 구매하는 장소나, 히잡을 착용하는 방법 등의 차이는 어떠한가? 연령별로 패션으로서 히잡에 대한 의미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령별로 생애주기별 연구가 추가된다면 히잡이 유행하게 된 시점에서 인도네시아 여성 사회의 문화사적인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이것은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의 미적 실천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폭넓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력을 가진 여성들의 구별 짓기가 가져오는 히잡의 양극화 현상은 어떠한지 궁금했다. 다시 말해, 상대적으로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한 계층의 여성들과 중상류층 여성들과의 히잡 착용 차이점

에 대해서다. 패션에 관심이 많고, 서구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중상류층 여성과 달리 하류층 여성은 히잡을 실용적이고, 경제적인 일상복으로 여길 것이다. 히잡을 매개로 각 여성들의 교육정도와 사회계층 간의 차이를 읽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본다.

마지막으로, 히잡의 대중화 현상에서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 구매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 소비 트렌드에 대한 것이다. 미디어에 노출되는 중상류층 30~40대 히잡의 해외여행용 패션이나 그들의 소셜 미디어 이미지들은 가상현실을 넘어서 실제 소비로 이어진다. 현대 무슬림 여성들의 패션의 경향이 점차 자신을 표현하는 형태로 변화되고 있는데, 그 주요 원인은 위성방송, 인터넷의 확산과 같은 미디어의 발달이다. 좁게는 히잡의 패션 대중화와 미디어의 관계에 대해서, 넓은 측면에서는 미디어가 이슬람적인 대중문화를 어떤 식으로 선도하고 있는지 고민해 보게 된다. 차후 연구가 더 진행된다면 이런 점들이 고려되길 바란다.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의 미적 실천에 대한 민족지적이며 현장감 넘치는 저자의 분석들은 그가 무슬림 여성들의 삶을 편견 없이 균형적으로 바라보고자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히잡은 무슬림 여성에게 복장으로만 의미 있는 것을 넘어서 히잡을 착용한 여성의 다양한 현실을 반영한다. 앞으로 무슬림 여성에 대한 왜곡되지 않은 관심이 다양한 측면에서 지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